

## 일본 기혼여성들과 친정부모간의 세대관계: 동거여부 및 대화빈도를 중심으로\*

김정석\*\* · 조윤주\*\*\*

일본의 성인자녀와 노부모간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기혼여성과 이들의 친정부모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세대간 동거여부와 대화빈도를 통해 이러한 세대관계를 접근하고 있다. 일본 기혼여성과 친정부모간 세대관계는 기혼여성들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그리고 친정부모의 상황에 따라 차별적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일본 2003년도 제2회 전국가족조사>를 이용해 친정부모와 시부모 양가의 일원이 모두 생존해 있는 30~40대 기혼여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친정부모와 동거할 확률(시부모와의 동거를 통제한 상태)은 부인의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특히 남자형제가 있는 경우 친정부모와의 동거확률은 두드러지게 낮았다. 이와 함께 친정부모 모두가 생존한 경우보다는 친정아버지만 생존한 경우에 해당 동거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친정부모와의 대화빈도(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를 통제한 상태)는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낮았으며,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낮았다. 한편, 해당 대화빈도는 친정부모 중 한 분만 생존한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편보다 부인의 학력이 높거나 친정부모에 대한 남편의 태도에 만족하는 경우에 친정부모와의 대화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형제자매수가 많으면 동거가능성도 낮아지지만 대화빈도도 낮아지는 결과는 형제자매간에 세대간 동거나 대화가 어느 정도 분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홀로된 친정부모와의 동거가능성이 높고 대화빈도가 많은 점은 노부모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자녀로서의 마음쓰임을 보여준다. 친정부모와의 대화빈도가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그리고 부부간 학력차이나 남편의 친정부모에 대한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은 기혼여성들이 시부모와 남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들은 기혼여성들의 세대간 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에서 다양한 가족관계를 동시에 고찰하고 고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핵심단어:** 일본 기혼여성,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 대화빈도, 가족관계, 세대관계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지원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327-2008-2-B00375). The data for the secondary analysis of Japan, "NFRJ03(National Family Research of Japan 2003), Japan Society of Family Sociology," were provided by the Social Science Japan Data Archive, the Information Center for Social Science Research on Japan,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the University of Tokyo.

\*\* 동국대학교-서울 사회학과 교수(교신저자) | chkim108@dongguk.edu

\*\*\* 동국대학교-서울 사회학과 대학원 | doolychan@hanmail.net

## I. 서론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노후부양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가족들이 맡아왔다(야스다토키오, 2004; 이수진, 2006; 야마토레이코, 2010; 김정남, 2011). 노부모에 대한 가족부양책임의 의식과 행위는 전형적으로 노부모와 아들부부의 동거, 장남의 단독 상속제 등 가부장제적 특성을 가진 일본의 이에(家) 규범을 통해 유지되고 실행되어 왔다. 이 규범에 의하면 노부모에 대한 자녀, 특히 아들의 부양은 자녀로서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여졌다(니시오카히치로, 2000; 시시도쿠니아키, 2006).

일본의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은 급격한 가족의식 및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성인자녀와 노부모세대간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가 경험하는 바와 같이, 노인들이 혼자 혹은 부부만 사는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구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니시오카히치로, 2000; 타부치로쿠로, 2009). 여기에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녀수의 감소, 젊은 세대들의 도시로의 이주 등이 주요한 인구학적 조건으로 작동하였다. 한편,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고 독립적인 삶을 지향하는 태도 또한 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은기수·이윤석, 2005; 니시노미치코, 2008; Nishino, 2012).

고령화현상이 일찍 진전된 일본에서는 노후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제도가 한국에 비해 발달되고 정착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1985년에 국민기초연금제도가, 2000년에는 공적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노년기에 요구되는 경제적 지원이나 돌봄 서비스를 자녀가 아닌 공적 기관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되었다(야마토레이코, 2010; 김정남, 2011). 공적 지원과 서비스는 자녀세대로부터 받는 부양에 대한 기대나 의식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오늘날 일본의 노인들 중에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신체적 지원을 당연시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타부치로쿠로, 2006).

성인자녀와 노부모 세대간의 관계변화에서 주목하는 한 가지 현상은 기혼여성과 친정부모간의 관계이다. 저출산에 따른 형제자매수의 감소는 외동아들과 외동딸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들로 맺어진 부부에서 남편부모와의 동거나 남편부모와의 관계를 압도적으로 우선시하는 이에(家)적 가족관계의 관행이 지속될 기반은 약화될 것이다(Akihide Inaba, 2011). 한편, 여성지위변화에 따라 부계 우선적 관행은 약화되며, 남편부모 및 부인부모와 균형 있는 관계를 맺는 양계화된 세대관계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야마토레이코, 2010).

경험적인 연구들에 의하면 오늘날 일본에서 기혼여성들과 친정부모간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다(시라하세사와코, 2005; 치토세요시미, 2010; 김정남, 2011). 특히 기혼여성들과 친정부모간의 관계는 부양규범보다는 애정적인 유대에 기반을 두으로써 정서적인 교류가 시부모보다 더 활발하다고 알려져 있다. 노부모의 입장에서 정서적 지원과 교류는 아들보다는 딸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시라하세사와코, 2001; 이수진, 2006; 다나카케이코, 2006; 이와이노리코·야스다토키오, 2008; 카도요쿠, 2011; Eun, 2012).

기혼여성들과 친정부모간의 관계와 그 변화가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형편이다. 노부모와 자녀세대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남편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기혼여성들과 친정부모간의 관계를 세대간의 동거여부와 대화빈도를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세대간의 관계는 생애주기상의 단계에 따라 역동적임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30~40대 기혼여성으로 한정하여 그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 II. 이론적 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들과 친정부모간의 세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기혼여성의 개인특성과 이들의 가족원 특성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기혼여성의 가족원에는 남편과 자녀, 기혼여성의 형제자매, 이들의 친정부모와 시부모가 포함된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부부간 지위를 보여줄 수 있는 연령차와 학력차, 그리고 친정부모에 대한 남편태도의 평가 등을 포함하였다.

자녀특성으로는 자녀수와 미취학아동유무를 고려하였다. 기혼여성의 형제자매는 그 수와 남자형제유무를 포함하였다. 남편의 형제자매 특성 또한 기혼여성들과 친정부모간의 관계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자료상의 제약으로 포함하지 못하였다. 친정부모와 시부모의 특성으로는 각 부모의 생존현황을 고려하였다. 시부모의 경우에는 시부모와의 거주형태를 함께 고려하였다.

세대간 동거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각 세대의 필요와 자원,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선호도가 조합되는 과정으로 이를 이해하고 있다(한경혜·윤성은, 2004; 정재기, 2007; Kojima, 1989; Martin, 1989; Tsuya and Martin, 1992; Kim and Rhee, 1997, 2000; Ogawa and Retherford, 1997; Kim, Anderson and Romani, 2000; Kim, 2004, 2010, 2012; Tabuchi, 2012). 본 연구에

서 살펴보고자 하는 기혼여성과 친정부모간의 동거여부도 이러한 틀에 기초하고 있다. 가령, 친정부모가 돌봄이 필요한지는 친정부모가 갖는 동거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편, 어린 자녀의 존재는 자녀양육에 지원이 필요한 기혼여성의 상태를 의미할 수 있다.

기혼여성이 친정부모와 동거할 지를 설명함에 있어 본 연구가 주목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친정부모와 시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시부모와의 동거여부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시부모와의 동거여부가 통제된 상황에서 기혼여성의 형제자매 상황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기혼여성과 친정부모간의 동거는 남편이 장남이 아니거나, 부인에게 남자 형제가 없는 장녀일 경우에 많이 발견된다(시시도쿠니아키, 2006). 한편 형제자매 수가 많으면 그 만큼 자녀의 입장에서는 동거의 대상으로 선택될 가능성 또한 낮아진다.

친정부모와의 동거에는 친정부모의 결혼상태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노부모 중, 배우자 사별로 인해 홀로 남게 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니시오카하치로, 2000; 타부치로쿠로, 2009). 친정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정부모가 사별한 상태에 있을 경우, 기혼여성이 동거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짐작은 쉽게 가능하다.

세대간의 동거에 비해, 세대간 연락과 접촉은 앞서 언급한 필요와 자원 모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특히 정서적 교류의 형태로 세대간 접촉이 일어날 경우, 필요와 자원 이외에도 서로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큰 몫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기원, 2001). 본 연구에서는 세대간 지원이 요구되는 조건들(예, 친정부모의 돌봄 필요여부, 어린 자녀의 유무 등)을 일부 통제했을 때 기혼여성 과 친정부모간의 연락빈도가 어떻게 다를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친정부모와의 연락빈도에서 특히 주목하는 요인들은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남편의 특성, 형제자매수 및 친정부모의 생존상황이다. 시부모와 동거하는 여성들의 경우 친정부모와의 연락이나 접촉횟수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라 예상된다. 한편, 부부간의 지위 차이 또한 친정부모와의 연락빈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부간 연령 및 학력면에서 부인의 상대적 우위는 기혼여성이 친정부모와 보다 자유롭게 연락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을 남긴다.

부인의 형제자매수 또한 친정부모와의 접촉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많은 형제자매들이 친정부모와 함께 교류할 것이므로 해당 기혼여성의 몫은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친정부모 중 한 분만 생존하고 있을 경우, 안부전화와 방문이 보다 빈번해질 가능성도 있다.

### Ⅲ. 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일본의 가족사회학회 전국가족조사위원회가 실시한 '2003년도 제2회 전국가족조사(NFRJ-03)' 자료를 이용한다. 이 조사는 현대 일본 가족의 사회문화적, 인구학적 추세에 관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목적을 가진 전국 규모의 사회조사로 1998년에 제1회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후 매5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단계 층화2단 무작위추출방법을 통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제2회 조사는 2004년 1월부터 2월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1926년부터 1975년 사이에 출생한 일본인 6,3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혼여성들과 친정부모간의 동거여부와 대화빈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분석사례를 추출하였다. 우선,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30대와 4대 연령층의 기혼여성(1,143명)을 선택하였다. 이들 연령층은 생애주기상 자녀양육이 여전히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노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은 본격화되지 않은 단계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연령층은 친정부모와 시부모가 함께 생존해 있는 가능성이 상위 연령층에 비해 높기 때문에, 분석에 요구되는 적절한 사례수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앞서 선택된 연령대의 기혼여성 중에서 친정부모와 시부모 각각 한 명이상 생존하고 있는 사례(966명)를 선택하였다. 이는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나 대화빈도에 시부모의 존재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거나 살펴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마지막으로 분석모형에 포함된 관련변수들에 결측치를 보인 사례(113명)를 제외하였다. 분석에 동원된 변수가 많고, 태도나 의식을 묻는 문항들이 있어 제외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보된 사례는 총 853명이다.

다음의 <표 1>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사례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친정부모와의 관계는 동거여부와 대화빈도를 통해 접근하고 있다. 친정부모와의 동거는 기혼여성과 친정부모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 같은 단지나 건물 내에 살고 있는 경우, 이웃집 등으로 한정하였다. 결과, 분석 사례 중 7.9%가 현재 친정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정부모와의 대화빈도는 '지난 1년간 깊은 대화를 어느 정도 하였습니까(전화통화도 포함합니다)?' 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6점 척도의 응답을 통해 측정되었다. 친정부모와의 대화가 전혀 없다는 비율은 3.0%에 그치고 있다. 친정부모와 월 1~2회 간격으로 대화를 하는 비율이 32.1%로 가장 높았다. 이를 이어 1년에

&lt;표 1&gt; 변수와 사례분포 (n=853)

변수	평균/분포	변수	평균/분포
<b>&lt;친정부모와의 거주형태&gt;</b>		<b>&lt;시부모와의 거주형태&gt;</b>	
동거	7.9%	동거	26.9%
같은 집	5.5%	같은 집	21.1%
같은 단지/별동	2.0%	같은 단지/별동	4.3%
이웃집	0.4%	이웃집	1.5%
별거	92.1%	별거	73.1%
도보거리이내	9.7%	도보거리이내	11.6%
1시간미만 거리	44.9%	1시간미만 거리	32.1%
3시간미만 거리	18.1%	3시간미만 거리	13.7%
3시간이상 거리	19.4%	3시간이상 거리	15.7%
<b>&lt;친정부모와의 대화빈도&gt;</b>		<b>&lt;남편과의 관계&gt;</b>	
1=전혀 없음	3.0%	부부간 연령차이 비율분포	
2=년 수회	25.0%	부부 같은 연령	16.0%
3=월 1~2회	32.1%	부인이 연상	16.1%
4=주 1~2회	21.2%	남편이 연상	67.9%
5=주 3~4회	8.6%	부부간 학력차이 비율분포	
6=거의 매일	10.1%	부부 같은 학력	44.3%
평균수치	3.62점	부인이 남편보다 높은 학력	16.3%
		남편이 부인보다 높은 학력	39.4%
<b>&lt;개인특성&gt;</b>		친정부모에 대한 남편태도 만족	78.8%
연령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76.7%
30대	54.0%		
40대	46.0%	<b>&lt;자녀&gt;</b>	
거주지역		자녀수	1.9명
읍면 지역	20.7%	미취학 아동 있음 (vs. 없음)	44.0%
인구 10만 미만 도시	17.6%		
인구 10만 이상 도시	39.9%	<b>&lt;부인의 형제자매&gt;</b>	
인구 50만 이상 도시	21.8%	부인의 형제자매수	1.5명
부인의 학력		부인의 남자 형제 있음 (vs. 없음)	60.0%
고등학교 졸업이하	40.0%		
단과대학/전문대 졸업	45.3%	<b>&lt;부인의 친정부모&gt;</b>	
대학교이상 졸업	14.7%	친정부모가 돌봄 필요함	7.6%
현재 취업종임	55.0%	친정부모 생존여부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	70.9%	친정부모 모두 생존 비율	70.8%
주관적 경제상황이 좋음	39.2%	친정어머니만 생존 비율	23.2%
		친정아버지만 생존 비율	6.0%

수차례, 그리고 주 1~2회 정도로 대화를 하는 비율이 각각 25.0%와 21.2%로 나타났다. 한편, 주 3~4회 이상(거의 매일 포함) 대화를 하는 비율은 18.7%에 이르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친정부모와의 대화빈도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대화빈도가 낮은 범주에는 1, 빈도가 높은 범주에는 6의 값을 지정한 결과, 평균값이 3.62점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에서는 계량화된 점수를 사용하였다.

시부모와의 관계는 동거여부를 통해 접근하였다.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또한 친정부모와 마찬가지로 시부모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 같은 단지나 건물 내에 살고 있는 경우, 이웃집 등으로 한정하였다.<sup>1)</sup> 분석사례중 시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비율은 26.9%로 나타나는데, 이 비율은 친정부모와의 동거비율에 비해 매우 높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세대간의 동거는 주로 남편의 부모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시부모와 동거는 친정부모와의 동거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시부모와 친정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친정부모와의 대화빈도를 제약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기혼여성의 특성으로는 연령, 거주지역, 학력, 취업여부, 건강상황과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을 고려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령은 30~49세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평균값은 39.0세로 나타났다. 분석 사례 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은 21.8%, 인구 10만 이상에서 50만 미만에 거주하는 비율은 39.9%로 나타나 대다수가 도시지역에 거주함을 알 수 있다.<sup>2)</sup>

교육수준면에서 분석사례의 대다수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중학교 이하 학력은 매우 극소수)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 특히 단과대학이나 전문대졸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여부는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분석사례의 55.0%가 현재 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문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나 이들 여성의 취업률은 30대보다는 40대 연령층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기혼여성들이 자녀의 양육부담이 높은 시기에는 잠시 일을 쉬다가, 자녀가 어느 정도 크면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M자형 취업형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혼여성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지난 1년 동안 본인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5점 척도의 응답(매우 좋음, 좋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측정되었다. 응답지 중 매우 좋음과 좋음을 ‘건강한 편’으로 묶고 나머지를 ‘건강하지 못한 편’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분석사례의 70.9%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은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가구의 경제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현재 본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4점 척도의 응답(매우 좋음, 좋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측정되었다. 분석에서는 앞의 두 가지 응답을 ‘중

1) 타부치로쿠로(2006)는 노부모와 자녀가 별거를 하나 근거리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세대간 거주형태를 ‘같은 집,’ ‘같은 단지/별동,’ ‘이웃집’까지를 “동거-이웃집 거주”의 한 집단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2) 일본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정령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음' 뒤의 두 가지 응답을 '나쁨'으로 이분하였다. 자신이 속한 가구의 경제상황을 ' 좋음'으로 평가한 비율은 39.2%로 나타났다.

남편과의 관계는 부부간 연령차이, 학력차이, 친정부모에 대한 남편태도 평가,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고려하였다. 부부간 연령차이가 없는 사례는 16.0%, 부인이 연상인 사례는 16.1%, 남편이 연상인 사례는 67.9%로 나타났다. 한편, 학력 면에서 부부간의 차이가 없는 사례는 44.3%, 부인의 학력이 높은 사례는 16.3%, 남편의 학력이 높은 사례는 39.4%로 나타났다. 대체로 남편의 학력과 연령이 부인의 그것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친정부모에 대한 남편 태도는 "본인 부모에 대한 배우자의 대우방식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4점 척도의 응답(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으로 측정되었다. 분석에서는 이를 만족과 불만족으로 이분하였으며, 분석사례의 78.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생활 만족도는 "결혼생활 중에서 부부관계 전체에 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성생활에 관한 만족도는 별도로 있음)" 문항으로 살펴보았다. 이 또한 4점 척도의 응답(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를 만족과 불만족으로 이분하였다. 분석사례의 76.7%가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관한 항목으로는 자녀수와 미취학아동유무를 고려하였다. 분석사례들의 평균자녀수는 1.9명이었다. 가구나 미취학 아동이 있는 비율은 44.0%이다. 이는 대부분 30대 연령층의 여성에게서 발견된다.

자녀수에 이어, 기혼여성의 형제자매수와 남자형제유무를 고려하였다. 남편의 형제자매수와 남자형제유무가 시부모와의 동거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친정부모와의 동거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자료에서 남편의 형제자매수와 남자형제유무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음을 다시 밝혀둔다. 분석사례들의 평균 형제자매수는 1.5명이며, 남자형제가 있는 비율은 60.0%로 나타났다.

친정부모의 상황으로는 친정부모가 돌봄이 필요한지, 그리고 친정부모 모두가 생존하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친정부모가 돌봄이 필요하다는 기혼여성들은 분석사례의 7.6%이다. 한편, 친정부모 모두가 생존하고 있는 비율은 70.8%, 친정아버지만 생존하고 있는 비율은 6.0%, 친정어머니만 생존하고 있는 비율은 23.2%로 나타났다. 친정아버지와 친정어머니 생존비율의 차이는 노년기 남녀별 기대수명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IV.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와 대화빈도 분석

기혼여성들과 친정부모간의 거주형태를 동거(이웃집 거주 포함)와 별거로 이분하고, 별거를 준거로 하여 이항로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부모와의 동거는 친정부모와의 동거를 제약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분석도 시부모와의 동거여부를 통제하는 데서 출발한다. 예상했던 대로 시부모와의 동거는 친정부모와의 동거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있다.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이외에,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특성 중 거주지역과 주관적 건강상태, 기혼여성의 형제자매와 남자형제유무, 친정부모의 생존상황만이 유의한 효과를 가진다. 그 외 변수들은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에 유의한 효과를 갖지 못한다.

기혼여성이 거주하는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친정부모와의 동거경향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과 시골에 남은 친정부모와의 지리적 거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인의 건강상태를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 기혼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친정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효과가 통제된 상태에서 나타난 주관적 건강상태의 효과는 친정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기 보다는 도움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친정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원은 어린 자녀에 대한 돌봄이다. 분석모형에 포함된 가구내 미취학 아동의 존재나 기혼여성의 자녀수가 친정부모와의 동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편의 특성으로 포함된 부부간 연령차이, 부부간 학력차이, 친정부모에 대한 남편의 태도에 대한 평가,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수와 미취학아동의 유무 또한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에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기혼여성의 형제자매수와 남자형제유무는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뚜렷한 효과를 보인다. 이들 여성의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친정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성인자녀 중 한 사람이 친정부모와 거주하는 상황에서 기혼여성의 형제자매수는 해당 여성이 친정부모와 동거할 인구학적 조건을 의미한다. 한편, 세대간 동거는 대체로 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혼여성의 친정부모는 여성의 남자형제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세대간 동거는 아들과 노부모간 동거가 주축이 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기혼여성의 친정부모가 돌봄을 필요한 상황은 세대간 동거에 영향을 미치지

&lt;표2&gt;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대한 로짓 회귀모형 (n=853)

변수	b	s.e.	exp(b)
상수	-1.784*	0.812	0.168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시부모와 동거 (vs. 별거)	-2.492***	0.620	0.083
〈개인특성〉			
연령	0.373	0.358	1.451
거주지역 (vs. 읍면지역)			
인구 10만 미만 도시	0.141	0.409	1.151
인구 10만 이상 도시	-0.925**	0.382	0.396
인구 50만 이상 도시	-1.131**	0.479	0.323
학력 (vs. 고등학교졸업이하)			
단과대학/전문대 졸업	-0.211	0.340	0.810
대학교이상 졸업	-0.743	0.528	0.476
현재 취업 (vs. 비취업)	0.288	0.327	1.334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vs. 나쁨)	0.867**	0.362	2.379
주관적 경제상황 (좋음 vs. 나쁨)	-0.328	0.325	0.720
〈남편과의 관계〉			
부부간 연령차이 (vs. 부부동갑)			
부인이 연상	0.189	0.481	1.208
남편이 연상	-0.270	0.409	0.763
부부간 학력차이 (vs. 부부 같은 학력)			
부인이 남편보다 높은 학력	0.305	0.434	1.356
남편이 부인보다 높은 학력	0.213	0.358	1.237
친정부모에 대한 남편태도 만족 (vs. 불만족)	-0.111	0.413	0.895
결혼생활 만족 (vs. 불만족)	0.213	0.416	1.238
〈자녀〉			
자녀수	0.195	0.176	1.215
미취학 아동 있음 (vs. 없음)	-0.050	0.388	0.951
〈부인의 형제자매〉			
부인의 형제 자매수	-0.592***	0.208	0.553
부인의 남자 형제 있음 (vs. 없음)	-1.245***	0.347	0.288
〈부인의 친정부모〉			
친정부모 돌봄 필요 (vs. 필요 없음)	0.516	0.497	1.676
친정부모 생존여부 (vs. 모두 생존)			
친정어머니만 생존	0.404	0.342	1.497
친정아버지만 생존	1.799***	0.485	6.046

\* p&lt;0.10, \*\* p&lt;0.05, \*\*\* p&lt;0.01

않고 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가능하다. 먼저 친정부모가 필요한 돌봄을 충족시키려는 세대간 동거에서 기혼여성보다는 이들 여성의 남자형제가 우선시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들에 대한 신체적, 도구적 돌봄의 상당 부분이 가족이 아닌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세대가 동거가 크게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친정부모의 생존상황은 친정부모 중 친정어머니만 생존하고 있는가, 친정아버지만 생존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친정부모가 둘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보다 친정아버지만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 세대간 동거 가능성이 높지만, 친정어머니만 생존하고 있는 경우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친정부모가 모두 생존하고 있거나 친정어머니만 생존하고 있는 경우 이들 부모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친정아버지만 홀로 남았을 경우, 기혼여성과의 동거가능성은 높아진다.

다음의 <표 3>은 친정부모와의 대화빈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이다. 앞의 <표 2>에서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변수들에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를 통제변수로 설정한 모형으로 접근하고 있다. 여기서 분석되는 대화빈도는 대면접촉과 전화통화 등을 포함한다. 친정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대면 접촉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따라서 대화빈도 또한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 주어진 표에 의하면, 친정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화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또한 친정부모와의 대화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시부모와 동거하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친정부모와 대화하는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혼여성의 특성 중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쳤던 거주지역과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효과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다. 전화 등을 통해 친정부모와의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지역에 따른 지리적 거리의 효과의 유의성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 건강상태 또한 친정부모와의 대화빈도에서는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대해 설명력이 없는 남편의 특성은 대화빈도에서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부간 학력차이와 친정부모에 대한 남편태도의 만족여부가 친정부모와의 대화빈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부인의 학력이 남편보다 높을 경우에 기혼여성과 친정부모간의 대화빈도가 많아진다. 한편, 친정부모에 대한 남편의 태도에 만족할수록 기혼여성과 친정부모간의 대화빈도가 많아진다.

자녀수와 미취학아동유무는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친

&lt;표 3&gt; 친정부모와의 대화빈도에 대한 다중회귀모형 (n=853)

변수	b	s.e.	beta
상수	3.319***	0.224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			
친정부모와 동거 (vs. 별거)	1.741***	0.156	0.357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시부모와 동거 (vs. 별거)	-0.237**	0.095	-0.081
〈개인특성〉			
연령	-0.099	0.010	-0.078
거주지역 (vs. 읍면지역)			
인구 10만 미만 도시	0.047	0.128	0.012
인구 10만 이상 도시	-0.109	0.110	-0.043
인구 50만 이상 도시	-0.099	0.126	-0.035
학력 (vs. 고등학교졸업이하)			
단과대학/전문대 졸업	0.158	0.320	0.069
대학교이상 졸업	-0.324**	0.133	0.088
현재 취업 (vs. 비취업)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vs. 나쁨)	-0.090	0.088	-0.035
주관적 경제상황 (좋음 vs. 나쁨)	0.052	0.090	0.018
	-0.058	0.085	-0.022
〈남편과의 관계〉			
부부간 연령차이 (vs. 부부동갑)			
부인이 연상	0.127	0.140	0.036
남편이 연상	0.011	0.110	0.004
부부간 학력차이 (vs. 부부 같은 학력)			
부인이 남편보다 높은 학력	0.215*	0.125	0.061
남편이 부인보다 높은 학력	-0.001	0.096	-0.001
친정부모에 대한 남편태도 만족 (vs. 불만족)			
결혼생활 만족 (vs. 불만족)	0.219**	0.111	0.069
	0.023	0.108	0.007
〈자녀〉			
자녀수			
미취학 아동 있음 (vs. 없음)	0.005	0.048	0.003
	0.149	0.102	0.057
〈부인의 형제자매〉			
부인의 형제 자매수			
부인의 남자 형제 있음 (vs. 없음)	-0.147***	0.043	-0.113
	-0.064	0.088	-0.024
〈부인의 친정부모〉			
친정부모 돌봄 필요 (vs. 필요 없음)			
친정부모 생존여부 (vs. 모두 생존)	0.197	0.150	0.040
친정어머니만 생존			
친정아버지만 생존	0.638***	0.098	0.207
	0.290*	0.173	0.053

\* p&lt;0.10, \*\* p&lt;0.05, \*\*\* p&lt;0.01

정부모와의 대화빈도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형제자매수는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친정부모와의 대화빈도는 적어진다. 친정부모와 대화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혼여성의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대화의 기회나 부담이 나뉘질 수 있다. 이는 해당 여성의 입장에서 자주 안부를 교환해야 하는 부담감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친정부모가 돌봄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기혼여성의 대화빈도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친정부모의 생존상황은 부모 모두가 생존한 경우에 비해 친정어머니나 친정아버지 홀로 생존한 경우에 대화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친정어머니만 생존한 경우는 친정아버지만 생존한 경우보다 그 효과가 더욱 뚜렷하다. 이 효과는 앞서 살펴본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일본의 중년기혼여성들과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 대화빈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주목한 변수들은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한 부부관계(남편의 특성 및 부부간 연령 및 학력차이), 자녀관계(자녀수 및 미취학아동유무), 여성의 형제자매관계(형제자매수 및 남자형제유무), 친정부모관계(친정부모의 돌봄필요여부 및 생존상황) 등으로 구분된다.

계량적 분석을 위해 2003년도에 실시된 '제2회 일본전국가족조사자료' 중에서 친정부모와 시부모 각각에서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이 생존한 30~40대 기혼여성을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에는 부인의 형제자매수와 남자형제의 존재, 그리고 친정부모의 생존상태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형제자매수와 남자형제는 친정부모에게 동거에 가용한 자녀수를 의미한다. 특히 남자형제의 존재가 기혼여성과 친정부모와의 동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세대간의 동거에서 노부모와 기혼 아들간의 동거가 노부모와 기혼 딸과의 동거보다는 우선시되는 현상을 반영한다.

친정부모와의 대화빈도에서는 시부모 동거여부가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시부모와 동거하는 여성들의 경우, 친정부모와의 대화빈도가 낮게 나타난 점은 친정부모와의 접촉이 시부모와 동거하는 상황에서는 제약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기혼여성의 형제자매수와 친정부모의 생존상태의 효과가 친정부모와의 대화빈도에서도 발견되었다.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대화빈도가 적어지는 현상은 친정부모와의 대화를 여러 형제가 함께 분담하는 현상이라 보인다. 또한 친정부모가 모두 생존한 경우보다 친정어머니나 친정아버지가 혼자 생존한 경우에 대화빈도가 많은 점은 홀로된 부모에 대한 마음쓰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친정부모와의 동거여부와는 달리, 대화빈도에서는 남편의 특성이나 관계가 어느 정도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기혼여성의 학력이 남편과의 학력보다 높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화빈도가 많다는 점은 부인이 남편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 친정부모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친정부모에 대한 남편의 태도에 따라 부인이 친정부모와 접촉하는 빈도가 달라진다는 점은 친정부모와의 관계에서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또한 일정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들은 친정부모와의 관계가 기혼 여성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부인의 형제자매, 친정부모, 시부모, 남편의 상황 등 다층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정 가족원간의 관계를 다른 가족원간의 다면적인 관계 속에서 접근하고 파악할 필요성을 확인시켜준다. 이러한 접근의 필요성은 기혼여성 뿐 아니라 기혼남성의 경우에도, 일본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고려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저출산과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저출산은 노인들에게는 동거와 세대간 대화대상이 되는 자녀수의 감소를, 성인 자녀에게는 노부모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부양을 공유할 수 있는 형제자매수의 감소를 의미한다. 특히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아들이 없는 노부모, 남자형제가 없는 성인자녀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의 지속은 한편으로는 기혼여성과 친정부모가 동거할 가능성을 높이고, 세대간 접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인구학적 조건을 만들어낸다. 향후 친정부모간의 세대간 관계가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예측하는 데에는 인구학적 조건이외에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학적 요건의 영향력은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부인과 친정부모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혼성인자녀와 노인세대간 관계에는 이외에도 기혼여성과 남편부모, 기혼남성과 자신의 부모, 기혼남성과 부인부모 등의 관계가 포함된다. 기혼여성의 입장에서 시부모와의 동거나 관계가 우선시되는 이에(家)적 가족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친정부모와의 관계와 시부모와의 관계를 나란히 대조해보는 연구작업이 요구된다. 한편, 기혼남성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관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은기수·이윤석 (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인구학회》 28(1): 107-132.
- 정재기 (2007) “한국의 가족 및 친족간의 접촉빈도와 사회적 지원의 양상” 《한국인구학회》 30(3): 157-178.
- 정기원 (2001) “노부모와 별거 성인자녀와의 가족유대: 정서적 지원에 대한 교향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회》 24(1): 123-148.
- 한경혜·윤성은 (2004) “한국가족 친족관계의 양계화 경향: 세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 27(2): 177-202.
- 金貞任(김정님) (2011) “既婚者の實親と義理親への非經濟的サポート” 第3回家族についての全國調査(NFRJ08)第2報告書-階層・ネットワーク 《日本家族社會學會 全國家族調査委員會》 pp. 111-130.
- 西野理子(니시노미치코) (2008) “家族意識からみた地域性: 日韓中3カ國比較” 《東洋大學福祉社會開發研究》 創刊号.
- 西岡八郎(니시오카하치로) (2000) “日本における成人子と親との關係: 成人子と老親の居住關係を中心に” 《人口問題研究》 56(3): 35-55.
- 田中慶子(다나카케이코) (2006) “親との關係良好度評価- NFRJ98と 03比較” 第2回家族についての全國調査(NFRJ03)第2報告書-親子きょうだいサポートネットワーク 《日本家族社會學會 全國家族調査委員會》 pp. 89-110.
- 白波瀨佐和子(시라하세사와코) (2001) “成人子への支援パターンからみた現代日本の親子關係” 《人口問題研究》 57(3): 1-15.
- \_\_\_\_\_ (2005) “親への支援” 《少子高齢社會のみえない格差-ジェンダー・世代・階層のゆくえ》 東京大學出版會. pp. 140-144.
- 宍戸邦章(시시도쿠니아키) (2006) “實親・義親への世代間援助にみる「家」の原理 -JGSS2006に基づく分析” 《日本版 General Social Surveys 研究論文集》 12: 1-12.

- 大和礼子(야마토펬이코) (2010) “日常的援助における性別役割分業にもとづく双系と系譜における父系の併存-現代日本における高齢者成人子関係についての文献レビューから” 《關西大學社會學部紀要》 42(1): 35-76.
- 保田時男(야스다토키오) (2004) “親子のライフステージと世代間の援助關係” 渡辺秀喜·稻葉昭英·嶋崎尚子編 《現代家族の構造と変容》 東京大學出版會 pp. 347-365.
- 李秀眞(이수진) (2006) “親への支援に對する規範意識と世代間支援における男女差-EASS2006データを用いた日韓比較-” 《日本版總合的社會調査 共同研究據点 General Social Surveys 研究文集》 12(9): 67-55.
- 岩井紀子·保田時男(이와이노리코·야스다토키오) (2008) “世代間援助における夫側と妻側のバランスについての分析” 《家族社會學研究》 20(2): 34-47.
- 千年よしみ(ちとせよしみ) (2010) “母親への支援にみる世代間關係の非對称性” 《人口問題研究》 66(4): 3-22.
- 角能(카도요쿠) (2011) “女性の老親扶養規範に關する實正的考察-ケアの理念と日常に注目して-” 第3回家族についての全國調査(NFRJ08)第2報告書-世代關係の動態 《日本家族社會學會 全國家族調査委員會》 pp. 65-82.
- 田淵六郎(타부치로쿠로) (2006) “高齢期の親子關係” 《季刊家計經濟研究》 70: 19-27.
- \_\_\_\_\_ (2009) “結婚した子と實親·義理の親とのつながり” 《現代日本人の家族-NFRJ からみたその姿》 有斐閣 pp. 166-185.
- Akihide Inaba (2011) “Trends and Future Direction of the Japanese Family: Analyses of NFRJ 98, 03, and 08 data” *Japanese Journal of Family Sociology* 23(1): 43-52.
- Eun, Ki-Soo (2012) “Family Contacts in Korea and Japan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Changing Families in Northeast Asia - Comparative Analysis of China, Korea and Japan*, edited by Ishihara, Kunio and Rokuro Tabuchi. Sophia University Press pp. 51-72.
- Kim, Cheong-Seok, and Ka-Oak Rhee. (1997) “Variations in Preferred Living Arrangements among Korea Elderly Par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2(2): 189-202.
- \_\_\_\_\_ (2000) “Correspondence between Actual Coresidence and Desire for Coresidence among the Elderly in Korea” *Hallym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2(1): 36-48.
- Kim, Cheong-Seok, Barbara A. Anderson and John H. Romani (2000) “Intergenerational Contact of Young Married Women in Korea with Parents and with Parents-in-law” *Journal of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23(2):



- 189-207.
- Kim, Cheong-Seok (2004) "Household and Family" *The Population of Korea*, edited by Kim, Doo-Sub and Cheong-Seok Kim, Korea National Statistics Office, pp. 161-192.
- \_\_\_\_\_ (2010) "Intergenerational Living Arrangements of Young Married Women in Korea, Japan and Chin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6(3): 59-72.
- \_\_\_\_\_ (2012) "Living with Parents-in-law in East Asia" *Changing Families in Northeast Asia - Comparative Analysis of China, Korea and Japan*, edited by Ishihara, Kunio and Rokuro Tabuchi, Sophia University Press, pp. 35-49.
- Kojima, Hiroshi (1989) "Intergenerational Household Extension in Japan" in *Ethnicity and the New Family Economy: Living Arrangements and Intergenerational Financial Flows*, edited by Goldscheider, Frances K. and Calvin Goldscheider, Boulder: Westview Press.
- Martin, Linda G (1989) "Living Arrangements of the Elderly in Fiji, Korea,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Demography* 26(4): 627-643.
- Nishino, Michiko (2012) "Gender Role Ideology in Japan, Korea, and China" *Changing Families in Northeast Asia - Comparative Analysis of China, Korea and Japan*, edited by Ishihara, Kunio and Rokuro Tabuchi, Sophia University Press, pp. 199-214.
- Tsuya, Noriko O. and Linda G. Martin (1992) "Living Arrangements of Elderly Japanese and Attitudes Toward Inheritance" *Journal of Gerontology* 47(2): S45-S54.
- Ogawa, Naohiro and Robert D. Retherford (1997) "Shifting Costs of Caring for the Elderly Back to Families in Japan: Will it Work?"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3(1): 59-94.
- Tabuchi, Rokuro (2012) "Parent-child Proximity and its Determinants in Japan, Korea and China" *Changing Families in Northeast Asia - Comparative Analysis of China, Korea and Japan*, edited by Ishihara, Kunio and Rokuro Tabuchi, Sophia University Press, pp. 17-33.

## Relations of Married Women and their Own Parents in Japan: Coresidence and Contact Frequency

*Cheong-Seok Kim · YoonJoo Cho*

Few studies have done on the intergenerational relations of married women and their own parents in Japan. This study approaches the topic by examining coresidence and contact frequency between generations. The study expects the likelihood of living together (including living next door) and the extent of contact would differ by the characteristics of woman, her husband, children, her brothers and sisters, her own parents and parents-in-law. From the 2003 Survey for National Family Research in Japan, selected are 853 currently married women in their 30s and 40s whose parent and parents-in-law are alive. The analysis shows that the likelihood of living together with parents decreases as the number of brothers and sisters increases. In particular, the presence of brother substantially decreases the likelihood. Having father only alive (vs. having both parents alive) also increases the likelihood. The frequency of contact with parents is conditioned by the coresidence with parents-in-law. It also differs by the level of education and its gap between spouses. Subjective evaluation of husband's attitude toward her parents is important. As in the case of living together, the number of brothers and sisters and the survival status of parents are significant in explaining the frequency of contact with her parents. The results indicate that number of brothers and sisters as well as widowhood of parents serves as its demographic condition. The findings that the frequency of contact with parent are affected by coresidence with parents-in-law, education gap between spouses and husband's attitude toward her parents suggest that the relationship of married women with her own parents are conditioned by her husband and his parents.

**Key Words:** Intergenerational Relation, Family after Marriage,  
Multigenerational Coresidence, Contact between Generations